

# TSG

월간

2022  
09



2022 K LEAGUE TECHNICAL REPORT  
TSG MONTHLY MAGAZINE

[TSG's 픽] 베스트 플레이어

**에즈난데스**는  
어떻게 인천의 여증을  
빛나게 했나



02 K리그 월간 데이터·순위

06 K리그 월간 오버뷰

08 [TSG's 픽] 베스트 팀

상위권에서 시작되는 인천의 비상

12 [TSG's 픽] 베스트 플레이어

에르난데스는 어떻게 인천의 여름을 빛나게 했나

16 [TSG's 픽] 베스트 매치

'4-2 완승', 수원FC는 어떻게 "수원 더비"를 지배했나

20 TSG 기술위원 칼럼

K리그1에 다시 찾아온 '백4' 수비라인 <박태하 기술위원장>

24 TSG's TOPIC

충남아산이나, 경남이나. K리그2 플레이오프 출전권은 누구의 손에?



K LEAGUE

2022 K LEAGUE TECHNICAL REPORT  
TSG MONTHLY MAGAZINE

발행처 | (사)한국프로축구연맹

데이터 | BEPRO11

기획 | K리그 TSG

편집 및 디자인 | 그래픽레시오

사진 | FPhotos

발행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46 축구회관 5층

발행일 | 2022년 9월 19일

· 이 책의 저작권은 (사)한국프로축구연맹에 있습니다.

· 이 책에 실린 사진은 FPhotos가

제공한 것으로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 (사)한국프로축구연맹의 사전 허가 없이

책 내용의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 이 책에 사용된 K리그 기록은 (사)한국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공식 기록과 BEPRO11의 K리그

부가 기록 기준에 따릅니다.

K리그를 사랑하시는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중순 개막한 「하나원큐 K리그 2022」가 어느덧 시즌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각 팀의 목표를 위해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며, 올 시즌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축구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이면 40년을 맞이하게 되는 K리그는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를 비롯한 축구 콘텐츠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단순한 관전평 수준을 넘어, 축구에 대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축구팬이 직접 참여하는 기술적 측면의 새로운 소통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K리그의 수준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맹에서도 이런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K리그 축구팬 여러분께 좀 더 깊이있는 콘텐츠 제공을 위해 연맹 기술위원회 산하 기술연구그룹(TSG: Technical Study Group)에서 제작하는 테크니컬 리포트「월간 TSG」를 발간하였습니다.

기술연구그룹(TSG)은 박태하 기술위원장을 필두로 모든 기술위원이 P급 라이선스 또는 관련 박사 학위를 보유한 국내 최고의 축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수준 높은 분석 자료가 담긴「월간 TSG」는 K리그를 새롭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월간 TSG」는 인쇄물 형태가 아닌 웹 매거진 및 K리그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되며, 월별 데이터 정리, K리그 오버뷰, 이달의 감독 및 선수 분석, 베트스 매치 전술 리뷰, 칼럼 등 다양한 콘텐츠로 여러분과 만날 것입니다.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갈「월간 TSG」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항상 K리그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축구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

권 오 갑

K리그 1 순위표(08.31)

	경기 수	승점	승	무	패	득실
1 울산현대	28	59	17	8	3	20
2 전북현대	28	50	14	8	6	9
3 포항스틸러스	28	45	12	9	7	8
4 인천유나이티드	28	44	11	11	6	7
5 제주유나이티드	28	41	11	8	9	5
6 수원FC	28	36	10	6	12	-2
7 강원FC	28	36	10	6	12	-4
8 FC서울	28	36	9	9	10	0
9 수원삼성	28	30	7	9	12	-9
10 대구FC	28	28	5	13	10	-6
11 김천상무	28	27	6	9	13	-1
12 성남FC	28	21	5	6	17	-27

K리그 2 순위표(08.31)

	경기 수	승점	승	무	패	득실
1 광주FC	33	69	20	9	4	26
2 FC안양	32	59	16	11	5	10
3 대전하나시티즌	31	53	15	8	8	14
4 부천FC1995	33	53	15	8	10	7
5 충남아산FC	32	46	12	10	10	5
6 경남FC	31	44	12	8	11	6
7 김포FC	33	34	8	10	15	-20
8 서울이랜드FC	30	32	6	14	10	-6
9 안산그리너스	33	32	7	11	15	-8
10 전남드래곤즈	31	27	4	15	12	-13
11 부산아이파크	33	23	5	8	20	-21



K리그 득점 데이터

		xG	슈팅	득점	득점/xG	실 득점 - xG
1	수원삼성	7.88골	69회	12골	1.52골	+4.12골
2	포항스틸러스	7.08골	50회	6골	0.85골	-1.08골
3	제주유나이티드	6.82골	57회	10골	1.47골	+3.18골
4	울산현대	6.55골	56회	8골	1.22골	+1.45골
5	인천유나이티드	6.48골	64회	9골	1.39골	+2.52골

K리그 점유 데이터

		점유율	평균 패스 횟수	시퀀스당 패스	시퀀스당 시간	시퀀스 전개 속도
1	전북현대	61.9%	520회	4.3회	14.7초	9.5m/s
2	FC서울	61.0%	626회	5.1회	16.1초	7.2m/s
3	울산현대	57.7%	566회	5.1회	17.4초	8.7m/s
4	포항스틸러스	54.6%	545회	4.3회	13.4초	9.0m/s
5	제주유나이티드	52.5%	492회	3.9회	12.8초	9.6m/s

K리그 압박 데이터

		압박 강도(PPDA)	획득	공격 지역 획득	인터셉트	태클(성공)
1	FC서울	7.7	40.2회	13.2회	31.4회	7.6회
2	전북현대	7.8	46.8회	13.0회	29.4회	5.4회
3	울산현대	8.2	36.4회	11.0회	30.6회	7.0회
4	강원FC	10.1	43.4회	12.2회	32.6회	5.0회
5	수원삼성	10.3	47.2회	11.6회	29.0회	8.4회

기대득점(xG) | 득점 슈팅 찬스가 득점으로 연결될 확률을 의미. xG값은 슈팅 위치 및 각도, 연결된 패스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결정됨

시퀀스 | 볼 소유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연속적인 행위의 모음. 시퀀스의 시작은 골 볼 점유의 시작이며 상대의 수비, 슈팅, 볼 아웃 등의 상황에 종료.

압박강도(PPDA) | 전방 압박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상대방 골리인으로부터 60% 지역 이내에서의 상대방 패스 시도 횟수 당 수비 시도 행위로 계산됨

K리그2 득점 데이터

		xG	슈팅	득점	득점/xG	실 득점 - xG
1	전남아산FC	9.3골	85회	6골	0.65골	-3.3골
2	부천FC1995	8.19골	78회	7골	0.85골	-1.19골
3	FC안양	7.86골	66회	11골	1.40골	+3.14골
4	대전하나시티즌	7.75골	67회	10골	1.29골	+2.25골
5	광주FC	7.68골	87회	7골	0.91골	-0.68골

K리그2 점유 데이터

		점유율	평균 패스 횟수	시퀀스당 패스	시퀀스당 시간	시퀀스 전개 속도
1	광주FC	60.7%	531회	3.9회	13.3초	10.0m/s
2	대전하나시티즌	60.4%	490회	3.8회	12.6초	10.4m/s
3	경남FC	54.9%	438회	3.2회	11.8초	10.2m/s
4	전남드래곤즈	53.5%	457회	3.5회	11.9초	11.4m/s
5	안산그리너스	51.9%	478회	3.7회	11.6초	10.9m/s

K리그2 압박 데이터

		압박 강도(PPDA)	획득	공격 지역 획득	인터셉트	태클(성공)
1	대전하나시티즌	6.81	50.5회	12.5회	36.3회	7.5회
2	광주FC	7.04	54.5회	16.6회	38.5회	7.0회
3	경남FC	8.15	51.2회	14.6회	37.8회	8.2회
4	전남드래곤즈	8.17	47.8회	11.2회	39.6회	6.2회
5	안산그리너스	8.35	47.4회	8.8회	31.8회	9.4회

# K LEAGUE OVERVIEW

K리그의 8월은 뜨거운 태양 만큼이나 열정적이었다.

한 달 간 모든 주말을 빼놓지 않고 경기가 치러지며 많은 일정을 소화해왔다.

K리그1에서는 감독 교체도 2팀이나 일어났다. 대구와 성남이 최원권, 정경호 감독 대행 체제로 전환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한편 K리그2에서는 대전이 경남, 안양에게 잡히며 선두권과 크게 멀어지고 말았다.



## 본격적인 반등 기류에 올라탄 수원 삼성

수원은 이번 8월 반등 기류에 올라탄 모습을 보였다. 전체 5경기 중 3승을 거두며 강등권에 위치해있던 순위를 9위까지 끌어올렸다. 전반적인 수비 간격이 더욱 타이트해졌으며, 여름 이적 시장에 합류한 이종성은 중원에 수비력을 불어넣어 줬다. 여기에 전방 공격수들의 폼이 살아나기 시작하며 8월 최다 득점을 기록한 팀이 됐다. 수원은 이번 시즌의 27골 중 12골을 8월 한 달에만 넣으며 '득점력 부재'의 고민을 해소하는데 성공했다.



## 1위를 향하는 안양, 광주와의 승점차가 좁혀진다.

이번 8월 K리그2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인 팀은 안양이었다. 선두권에 위치한 광주, 대전이 조금 주춤하면서 안양의 순위가 2위까지 상승했다. 안양은 8월 6경기에서 4승 2무를 기록하며 승점 14점을 따냈다. 공격 쪽에서의 개인 기량이 크게 올라온 추세다. 아코스티는 이번 달에만 5도움을 기록했으며, 중앙 공격수 자리에는 박재용이라는 새 얼굴이 들어섰다. 중앙 미드필더인 안드리고는 이번 달에만 5골을 몰아넣으며 안양의 8월 최다 득점자 자리에 올랐다.



##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더욱 가까워진 인천

인천이 정말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가까워졌다. 8월 한 달 간 승점 11점을 따내며 K리그 내에서 가장 많은 승점을 따낸 팀이 됐다. 인천은 리그 4위 자리에 안착해 3위 포항을 승점 1점 차이로 쫓고 있다. 이적생 에르난데스가 8월 한 달간 4골 3도움을 기록하며 무고사의 공백을 완전히 메웠으며, 시즌 초에 비해 수비 조직력도 크게 올라왔다. 이제 에르난데스가 부상으로 이탈한 9월을 어떻게 이겨낼지가 이번 시즌의 최대 관건이 될 것이다.



## 길고 긴 부산의 침체기. 그 끝은 어디인가

한편 K리그2 순위표 끝자락에는 부산 아이파크가 있다. 이번 시즌 33경기에서 단 승점 23점 만을 획득하며 K리그2 순위표 최하위에 위치해있다. 시즌 중 박진섭 감독으로 사령탑을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내지 못하는 중이다. 부산은 이번 8월 간 1승 1무 3패를 기록했다. 단 2골밖에 넣지 못했으며, 기대 득점 역시 2.7골로 리그 최하위다. 박진섭 감독은 부임 후 많은 전술 실험을 통해 상황을 타개해보려 했으나, 결과가 따라주지는 못했다.



## '감독 교체' 분위기 반전에 나선 꼴찌 성남

한편 성남은 정말 힘겨운 8월을 보냈다. 외부에서 도는 '구단 매각설'에 김남일 감독까지 사임하면서 경기 외적으로 팀이 흔들릴 만한 요소가 계속 발생했기 때문이다. 경기 결과도 좋지 못해 최하위 탈출에 실패했다. 그래도 정경호 감독 대행 부임 직후 치른 수원FC전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 정경호 감독 대행은 베테랑 수비수 광광선을 8경기 만에 선발 출전시키며 그간 팀의 문제점이었던 수비 조직력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다.



## 부임 후 14경기째 무승... 이장관 감독의 첫승은 언제?

부산의 순위표 바로 위에는 10위 전남이 있다. 전남 역시 부산만큼이나 깊은 침체기를 겪고 있는 상태다. 지난 6월 이장관 감독을 영입하며 사령탑 교체를 감행했으나 아직까지도 첫 승을 신고하지 못했다. 무려 19경기째 승리가 없는 전남이다.(이장관 체제에서는 14경기 무승) 이번 8월 전남은 5경기에서 4무 1패를 기록했다. 대개 뒷심이 부족해 리드를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리그 승리가 그 어느 팀보다 간절한 전남이다.



# 상위권에서 시작되는 인천의 비상

무더운 여름이 끝나갈 때면, 인천은 항상 순위표 끝자락의 강등권이 익숙한 팀이었다. 항상 리그 하위권에 위치하며 끊임없이 생존에 대한 방법을 갈구해왔다. 그러나 '조성환 3년차'를 맞이한 이번 시즌은 다르다. 8월이 끝난 지금 인천은 4위 자리에 위치하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노리고 있다. 3위 포항과의 승점도 1점 차. 이번 시즌 인천의 성공가도는 어떻게 이뤄졌을까.



## 유연한 전술가 조성환과 3-4-3

조성환 감독의 최대 강점은 상대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준비해온다는 것이다. 포메이션 전체를 엮을 만큼의 큰 전술적 변화는 주진 않지만, 세밀한 부분을 유연하게 운영해 경기 구도를 유리하게 이끌 어갈 수 있게끔 한다.

인천의 기조는 3-4-3이다. 지난 시즌에는 3-5-2를 병행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번 시즌은 3-4-3이 주요 전술이다. 작년에 비해 공격 시, 보다 짧은 패스를 추구하는 스타일로 변화했다. 지난 시즌 인천은 44.5%의 점유율 아래 평균 341개의 패스를 기록했지만, 이번 시즌은 43.9%에 364개다. 점유율은 비슷하되 패스 횟수가 보다 많아졌다. 같은 공격을 전개하더라도 그 속에서 이뤄지는 패스 횟수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인천의 공격 전술은 3톱이 연계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빌드업 시에는 3톱 중 한 명이 중원으로 내려와 숫자를 확보하고, 전방으로 볼을 전개하는 역할을 한다. 미드필드 성향의 아길라르나 김도혁이 원어로 출전할 때 이러한 중원 가담을 자주 시도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스트라이커 에르난데스까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전방에 남아있는 다른 3톱의 일원들 역시 상대 수비-미드필드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고 다시 패스를 건넬 준비를 한다. 3톱이 전반적인 연계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팀 단위적인 공격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만약 나머지 톱 라인이 1선에서 볼을 받는다면, 중원으로 가담했던 공격수와 양 윙백이 빠르게 전진하여 다시 패스 옵션을 만들어준다.



인천의 공격 상황. 윙어 아길라르가 내려와 중원에 3MF 진영을 형성했다. 인천으로써는 패스 옵션이 많아진 셈.





▶ 인천 전술적 유연성

인천의 대구전 공격 형태. 아길라르가 자유롭게 움직이며 팀의 연계 과정에 많은 관여를 했다.



▶ 인천 수비 형태

인천의 서울전 수비 형태. 중원 패스 플레이를 자주 활용하는 상대로는 MF라인의 간격을 크게 좁혀 대응했다.



한편 공격 상황에서는 주로 아길라르를 통해 전술적 유연함을 가져가는 편이다. 아길라르는 3-4-3의 3톱과 중앙MF 자리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자원이다. 필드 어디서든 플레이 메이킹이 가능하며 공격 전개를 조율할 수 있다. 아길라르의 이러한 다재다능함은 조성환 감독의 전술적 유연함에 여러 옵션을 가져다줬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일례가 이번 8월에 펼쳐진 27R 대구전(08.07)과 23R 서울전(08.27)이라 할 수 있다. 조성환 감독은 이 두 경기에서 김도혁과 아길라르의 위치를 각각 반대로 배치하며 상대에 따른 맞춤 전략을 준비했다.

대구전에서는 김도혁과 아길라르가 각각 중앙MF와 윙어로 나섰다. 이는 5-4-1로 깊게 내려서는 대구의 밀집 수비를 깨기 위한 의도였다. 아길라르는 높은 지점에서 볼을 받아 대구의 수비 진영을 직접 위협했다. 이날 아길라르는 오른쪽 윙어로 나섰지만, 공격 시 자유롭게 움직이며 여러 위치에서 볼을 받아냈다. 아길라르가 연계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니, 자연스럽게 공격수 에르난데스가 득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한편 서울전에서는 아길라르가 중앙MF에, 김도혁이 윙어 자리에 위치했다. 서울은 대구와 반대로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을 추구하고 수비 시에는 강한 압박을 시도하는 팀이다. 인천은 아길라르를 3CB 앞에 배치하여 서울의 강한 압박으로부터 볼을 지켰다. 그

리고 수비 시에는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시도해 서울의 빌드업을 방해했다. 여기서 넓은 활동량을 보유했던 김도혁의 윙어 배치 요인이 나온다. 이날 김도혁은 윗선에서부터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하며 서울의 빌드업을 누르는데 큰 공헌을 했다.

### 중원라인의 유연함을 앞세운 5-4-1 수비

이번 시즌 인천은 수비 라인 쪽에서 안정적인 뎁스를 확보해 시즌을 치러왔다. 센터백 라인에는 델브리지, 김광석, 강민수, 김동민이라는 베테랑 수비진을 통해 후방 중심축을 확실히 잡았으며, 양 윙백 자리에는 민경현과 김준엽이 존재한다. 민경현은 이번 시즌 인천 신인 발굴의 최대 산물이다. 민경현은 시즌 개막 후 8월 일정까지 모든 경기에 출전하며 인천 측면의 핵심이 됐다.

인천은 수비 시 5-4-1 대형을 형성한다. 23R 서울전과 같이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존재하긴 하나, 밀선으로 내려서 공간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타이트한 간격을 통해 상대 공격을 측면으로 유도하는 것이 인천 수비의 1차 목표다.

만약 상대가 인천 원톱의 좌우 진영(하프 스페이스)에서 공간

을 얻고 공격을 전개하려 한다면, 중앙MF가 한 칸 정도 전진하여 해당 선수와의 거리를 좁히고 패스 길을 막아선다. 이때 압박을 나선 중앙MF는 자신의 배후 지역으로 전진 패스가 연결되지 못하게끔 압박 각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천에서는 김도혁과 이명주가 이러한 압박을 빠르고 정교하게 수행해냈다.

인천 수비의 특징은 MF라인을 다양한 형태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조성환 감독의 '전술적 유연함'과도 연관을 띄는 부분이다. 공격 시 필드를 폭넓게 활용하는 포항을 상대로는 양 측면MF가 이에 맞춰 폭넓게 움직이며 상대의 측면 전개에 대응했다. 1차적으로 MF라인을 좁혀 중앙 옵션을 막은 후, 포항이 측면으로 볼을 전개할 때 빠르게 반응한 것이다. 이때 윙백의 서포트는 필수다.

한편 전북, 서울과 같이 중원에서 패스플레이를 적극 활용하는 팀들을 상대로는 매우 폭 좁은 MF라인 간격을 형성했다. 측면MF가 안쪽까지 크게 좁혀와 하프 스페이스를 담당하는 형태다. 수비 구조는 간단하다. 중앙MF가 상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며 패스 옵션을 제한하는데 주력한다면, 안쪽으로 좁힌 측면MF가 하프 스페이스를 담당하며 압박을 나선 중앙MF 배후에 있는 선수를 커버하는 것이다.

인천의 이러한 수비 조직력은 사실 최근 들어서야 크게 좋아진 것이다. 시즌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인천은 리그에서 5번째로 높은

기대 실점 값을 보이는 팀이나, 높은 기대 실점에도 불구하고 낮은 실점을 허용한 이유는 골키퍼 김동현의 활약 때문이었다. 이번 시즌 김동현은 리그 내에서 가장 높은 선방 지수를 기록하며 인천의 실점 위기를 계속 막아왔다. 김동현의 선방 지수는 5.87점이며, 2위 송범근과도 큰 차이가 나는 수치다.

\*선방지수 : '기대 실점 실제 실점'의 값. 이 때 기대 실점은 골키퍼가 맞이한 유효 슈팅의 기대 득점값을 말한다.

인천은 8월 한 달간 수비 조직력 면에서 큰 개선을 보이며 리그 내에서 가장 견고한 팀 중 하나가 됐다. 8월 한 달 만으로 놓고 볼 때 인천은 리그 내에서 2번째로 낮은 기대 실점 값을 기록했다. 3.88골 만의 기대 실점을 허용했으며, 이보다 낮은 값을 기록한 팀은 제주가 유일하다. (3.87) 인천은 8월 한 달 동안 10골 5실점을 기록하며 이번 여름 K리그1 최고의 팀이 됐다.

이번 시즌 인천은 새로운 역사를 쓰려 한다. 인천이 현재 순위대로 시즌을 마무리한다면 FA컵 우승 결과에 따라 내년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도 있다. 파이널A 순위표조차 어색한 인천에게 있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은 구단 역사에 남을 호성적이 될 것이다. 이번 시즌 인천은 상위권에서 '비상'할 수 있을까. 2022년은 인천의 새 역사가 쓰이는 해가 될지도 모르겠다.



# 에르난데스는 어떻게 인천의 여장을 빛나게 했나

K리그2에서 돋보이는 외국인 선수들은 K리그1 팀들에게 많은 구애를 받아왔다. 국내 생활에 대한 적응은 물론이고, 수준의 차이는 있겠으나 국내 축구 스타일에 대해서도 적응되어 있기 때문이다. K리그2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는 외국인 선수라면, K리그1 팀들에게 '보증 수표'와 같은 존재였다.



올 여름 경남에서 인천으로 이적한 에르난데스가 바로 이 케이스다. 에르난데스는 지난 7월 인천으로 새 동지를 트자마자 리그 8경기 4골 4도움을 기록하며 구단의 기대에 부응했다. 8월 한 달로 한정하자면 5경기 4골 3도움으로, 가히 8월 최고의 활약이라고 할 수 있다. 에르난데스는 인천에 동지를 트지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아 인천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렸다.

## 킬 패스 능력을 지닌 라인 브레이커

에르난데스의 최대 강점은 라인 브레이킹과 킬 패스 능력에 모두 뛰어나다는 것이다. 상대 수비 라인에 붙어 언제든지 뒷공간을 노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킬 패스를 통해 전방 팀 동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전임자 무고사에 비해 높이 면에서는 부족하지만, 발밑에 한해서는 확실한 강점을 보이는 대체자이다.

인천은 공격 시 3-4-3 대형을 형성한다. 양 윙백이 넓은 측면을 점유하며, 3톱이 상대 수비라인을 상대한다. 중앙의 에르난데스는 대개 상대 센터백 사이에 붙어있다가, 한 번에 튀어나와 라인 사이 지역에서 볼을 받아내는 모습을 보인다. 이 경우 상대 센터백이 에르난데스의 뒷공간 쇄도를 인식해 지역을 지키는 탓에, 에르난데스가 전방에서 손쉽게 볼을 받아낼 수 있게 된다. 에르난데스는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며 윗선에서의 킬 패스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에르난데스는 상대 수비 라인에서 볼을 받아내 직접 킬 패스를 전개한다.

이와 같은 에르난데스의 능력에 따라 홍시후와 김보섭, 송시우와 같은 선수들이 빛을 보기 시작했다. 모두 3-4-3의 윙어로 출전하며 1선 공간 쇄도에 강점을 지닌 유형들이기 때문이다. 에르난데스가 전방에서 킬 패스를 시도할 때면, 이들이 상대 뒷공간으로 쇄도해 직접 득점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인천은 상대 수비 스타일에 따라 공격 라인의 조합을 조금씩 변



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 침투와 연계 모두 가능한 중앙의 에르난데스는 상수라는 것이 특징이다. 주변에 어떤 유형의 자원들이 들어서는가에 따라 에르난데스의 플레이 스타일이 유동적으로 변화하며 동료 선수들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게끔 했다.

에르난데스의 또 다른 특징은 공격 시에 가져가는 활동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이다. 에르난데스는 공격 시 중원 지역까지 활발히 내려오며 인천이 3-4-1-2나 3-5-2 대형까지도 형성하게끔 했다. 이는 조성환 감독의 개인적인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에르난데스는 8월 수원FC전 경기 후 인터뷰에서 "난 무고사와 다른 유형이다. 많이 뛰고 침투하는 것이 내 스타일이다. 전방위적으로 움직인 건 조성환 감독님의 주문이었다."라고 밝히며 자신의 넓은 활동 폭이 조성환 감독의 요구 사항이라는 점을 밝혔다. 본래 아길라르가 winger 자리에 배치될 경우 이러한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편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에르난데스 역시 중원 가담을 언제나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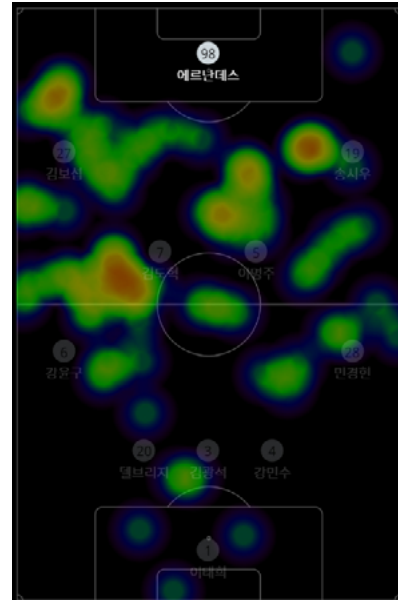
인천의 28R 전복전 선제골 장면. 에르난데스가 중원으로 내려와 3-5-2 대형을 형성했다.

에르난데스의 중원 가담에 대한 효과는 전복전 선제골 장면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전복전 골장면을 다시 돌아보자. 에르난데스가 중원으로 내려와 3-5-2 대형을 형성했다. 에르난데스와 이명주가 전복의 MF라인 지점에 위치했으며, 이 덕에 밀선의 김도혁이 중앙에서 공간을 얻을 수 있었다. 이후 김도혁이 1선의 2톱에게 볼을 연결하는 순간 에르난데스가 빠르게 전방으로 침투하여 득점을 만들어냈다.

에르난데스의 '중원 가담'과 '침투'가 모두 빛난 장면이었다. 중원 가담을 통해 김도혁에게 공간을 만들어줬으며, 김도혁이 공간을 얻었기 때문에 2톱에게 볼을 연결할 수 있었다. 조성환 감독은 이날 경기 후 인터뷰에서 "에르난데스가 전술적으로 이해를 잘하고 경기력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에르난데스의 전술 이해도를 치켜세웠다. 이날 인천은 3-1로 승리하며 4년 반 만에 전복을 꺾는데 성공했다.

에르난데스는 팀 내에서 90분당 키 패스 횟수가 가장 높은 선수다. 90분당 2.2개의 키 패스를 성공했으며, 팀 내에 90분당 키

에르난데스의 24R 포항전 볼 관여 위치. 스트라이커로 나섰지만 경기장 전방위적으로 볼에 관여했다.



패스가 2개를 넘는 선수는 전무하다. 아길라르가 1.8개를 성공시키며 그 다음을 잇는다. 여기에 8월 한 달로만 한정 지어 보자면 기대 득점 대비 실 득점 값이 가장 높은 선수이기도 하다. 에르난데스는 이번 한 달간 1.93xG 값의 기대 득점 속에서 4골을 성공시켰다. 리그 전체에서 기대 득점 대비 가장 많은 골을 넣으며 공격수로서의 높은 골 결정력을 선보였다.

### 역습의 선두주자 에르난데스

무고사가 나가고 에르난데스가 들어오면서 인천이 가장 탄력을 얻은 부분은 역습 상황이다. 에르난데스는 역습 시 빠른 주력을 통해 상대 뒷공간을 파고들며 인천 역습의 선두주자가 됐다. 본래 송시우나 김보섭처럼 빠른 선수들이 인천에 있던 하나, 이들은 어디까지나 winger라는 점이 한계다. 위치적으로 역습의 필두가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인천은 수비 시 5-4-1 대형을 형성한다. 대개 미드필드 1/3 지점으로 내려앉아 공간을 지키는데 집중하며, 선수들 간의 타이트한 간격이 기반이 된다. 당연하게도 에르난데스는 5-4-1 수비 대형 중 '1'의 자리에 위치한다. 수비 시 상대 3선 미드필더를 수비 범위 안에 두며 상대의 중앙 코스를 1차적으로 수비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다.

에르난데스의 위력은 인천이 볼을 탈취한 후 역습을 전개할 때 심분 발휘된다. 에르난데스는 역습 시 주로 측면으로 빠져 상대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때 측면으로 빠져나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크게 2가지다.

첫째는 상대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기가 보다 용이하다는 것이



다. 대개 상대 공격 작업은 중앙이 아닌 측면에서 이뤄지기 마련이다. 수비 시 타이트한 간격을 통해 상대의 중앙 빌드업 루트를 제한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이다. 상대가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한다면, 자연스럽게 상대 센터백이나 윙백의 뒷공간이 측면 쪽에서 발생하게 된다. 영상 속의 전복전과 서울전 모두 에르난데스가 상대 센터백의 뒷공간을 파고들어 득점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여기에 중앙에 비해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측면의 2번째 이점이다. 측면은 상대 압박이 비교적 덜한 지역이며, 볼을 끊어낸 동료로부터 패스를 전달받기 쉬운 각도에 위치할 수 있다. 에르난데스는 빠른 주력과 라인 브레이킹 능력을 통해 이러한 역습 루트를 위협적으로 활용해왔다. 영상 속에 있는 전복전 역습 장면을 다시 돌아보자. 팀이 볼을 끊어낸 후 에르난데스가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그는 상대 수비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기 위해 순간적으로 이동 방향에 변화를 줬다. 뒷공간으로 한 번에 쇄도하는 것이 아닌 라인에 한 번 걸치면서 상대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피한 것이다.

단, 측면은 중앙에 비해 상대 골문과의 거리가 멀다는 것이 단점이다. 득점까지 한 번에 연결하기가 어려우며 팀 동료들의 지원이 따라야 한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앞서 언급했던 '송시우나 김보섭과 같은 빠른 winger'들이다. 에르난데스가 측면으로 빠져나가 볼을 받는다면, 반대편에 위치해있던 winger가 빠르게 박스 안으로 쇄도하여 크로스 옵션을 만들어준다. 에르난데스는 슈팅과 크로스 두 가지 옵션을 모두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K리그를 떠난 지 두 달이나 되었으나 이번 시즌 무고사의 영향력은 여전히 개인 순위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만큼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인천 구단 외국인 선수 역사상 유례없는 활약을 펼친 것이다.

하지만, '대체자'로서 인천에 입성한 에르난데스는 더 이상 무고사의 이름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 보인다. 도리어 에르난데스는 '제 2의 무고사'가 아닌 '제 1의 에르난데스'가 될 수 있는 선수다. 가지고 있는 장점과 플레이 스타일도 다를뿐더러, 충분히 무고사의 공백을 지워낼 만한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8월 '비상'의 중심에는 에르난데스가 있었다.



에르난데스의 역습 형태. 측면으로 빠져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든다.





# 4-2 완승 수원FC는 어떻게 "수원 더비"를 지배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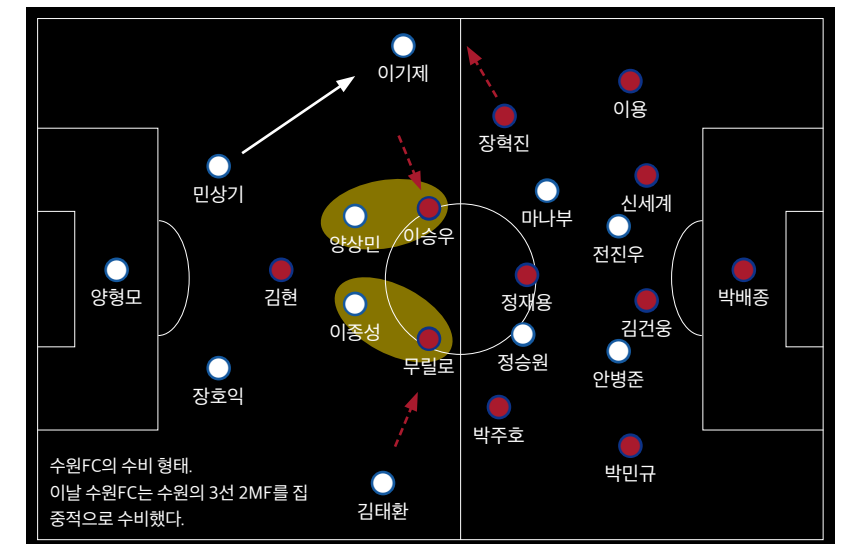
지난 8월 6일에 펼쳐진 올해 3번째 수원 더비에서 수원FC가 수원삼성을 상대로 4대 2 승리를 거뒀다. 6월 수원 더비에서 거둔 3-0 승리에 이은 2연승 기록이다. 이날 수원FC는 단 42% 만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도 4골이나 득점하는데 성공했다. 김도균 감독의 수원FC는 어떻게 수원 더비를 지배했을까.



## 수원FC의 중원을 이겨내지 못한 수원삼성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수원삼성이 높은 점유율을 형성하는 구도로 흘러갔다. 이날 수원삼성은 5-3-2의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왔으나, 공격 시에는 4-2-2-2에 가까운 대형을 형성했다. 왼쪽 센터백인 양상민이 왼쪽 미드필더 자리로 전진하고, 마나부와 정승원이 2선을, 그리고 전진우와 안병준이 1선 2톱을 이루는 형태였다. 수비 상황에서는 5-3-2를 그대로 활용하며 경기 중 백3와 백4를 혼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수원FC는 미드필드 1/3 지점에서 수비를 시작하며 공간을 지키는 것에 집중했다. 핵심은 수원삼성의 2MF를 봉쇄하는 것이었다. 4-5-1 대형을 기조로 하나, 양 윙어가 중앙으로 들어와 상대 2MF를 1v1로 수비하며 수원FC가 4-3-2-1을 형성하는 장면이



많았다. 만약 윙어가 상대 미드필더를 놓칠 때면 중앙의 정재용이 전진해 이를 커버했다.

한편 '박주호-정재용-장혁진'으로 이뤄진 수원FC의 3MF는 중앙과 측면을 모두 담당해야 했다. 1차적으로는 간격을 좁혀 중앙을 지키다가, 수원삼성이 측면 윙백을 활용할 때면 빠르게 반응하여 측면지역을 커버했다. 또한, 수원FC가 상대 빌드업을 측면으로 몰았을 때는 반대편 미드필더가 최후방으로 내려와 백5와 같은 대형을 형성하기도 했다.

2MF가 봉쇄당한 수원삼성은 빌드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팀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3선이 봉쇄당하니 2선으로 좋은 패스가 공급되지 못했다. 2선의 마나부와 정승원은 수원FC의 수비 구조상 전방에서 공간을 얻을 수 있었으나, 그곳에서 볼을 받아낼 때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전반적인 퍼스트터치가 공격적이지 못해 1선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수원삼성은 측면을 통해 공격을 풀어가는 양상을 보였





수원FC의 4-3-2-1 수비 형태. 윙어가 상대 2MF를 1v1로 수비하며 수원삼성의 빌드업을 제한했다. 허리 라인 양 끝에 위치한 박주호와 장혁진은 측면을 커버하며 수원의 폭넓은 공격에 대응했다.

다. 수원FC의 수비 구조상 측면 공간이 1차적으로 노출된 탓에, 수원삼성의 양 윙백이 빠른 공간 쇄도를 통해 측면에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러한 공격 전술을 위해서는 윙백 이기제와 김태환의 킥력이 관건이었다. 측면에서 반대 측면으로 빠르게 볼을 넘겨야 했으며, 수원FC의 미드필더가 측면을 커버하기 전에 박스 안으로 질 좋은 크로스를 공급해야 했기 때문이다.

수원삼성의 동점골 장면은 이러한 전술 구도에서 완벽히 이뤄진 것이었다. 윙백 이기제가 반대 측면의 김태환에게 빠르고 정확한 킥을 보내 수원FC의 측면 공간을 활용했다. 윙백 김태환은 볼을 받아 상대 박스 지점까지 끌고 갔으며, 이후 박스 안 안병준에게 정확한 크로스를 보내 팀의 선제골을 뽑아내는데 성공했다.



수원삼성의 윙백 활용. 수원FC의 측면 공간이 1차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이곳을 빠르게 활용해야 했다.

수원삼성이 이러한 전술 구도를 더욱 위협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박스 안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다. 수원삼성이 55분 마나부를 빼고 스트라이커 오현규를 투입한 이유도 이러한 요인 때문이다. 이날 이병근 감독이 공격 진영 쪽에 준 첫 교체였다. 전진우가 2선 마나부 자리로 내려가고 오현규가 안병준과 2톱을 이뤘다. 오현규는 빠른 스피드와 피지컬을 통해 상대 박스에서 적극적으로 경합할 수 있는 공격수다. 후반전 수원삼성은 오현규와 안병준, 전진우가 모두 박스 안에서 크로스 기회를 기다리며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려 했다.



## 수원삼성의 5-3-2를 간파한 수원FC

한편 수원삼성은 이날 5-3-2 수비 대형을 꺼내 들었다. 본래 4-4-2를 주요 수비 대형으로 채택해왔으나 이날은 백3 대형으로 변화를 줬다. 이는 수원FC가 본래 타겟맨 김현과 라스를 활용하여 1선으로 빠르게 볼을 투입하는 공격 형태를 보여준 것에 대한 수원삼성 이병근 감독의 대비책인 것으로 보인다. 센터백을 세 명이나 투입한다면 김현과 라스를 활용한 타겟 플레이에 더욱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날 수원FC는 공격 시 4-3-3 대형을 형성했다. 수비 시와 마찬가지로 박주호와 정재용, 장혁진이 3MF를, 이승우와 김현, 무릴로가 3톱을 이루는 형태였다. 수원FC는 공격 시 볼을 좌우로 빠르게 전개하며 수원삼성의 5-3-2를 공략했다. 구조적으로 5-3-2는 2톱과 3명의 MF가 중앙으로 밀집한 탓에 뒷선에서 측면 쪽에 대응할 마땅한 선수가 없기 때문이다.

수원FC의 주요 공략 지점은 왼쪽이었다. 공격 시 왼쪽 윙백인 박민규가 높게 전진하고 왼쪽 중앙 미드필더인 박주호가 측면으로 빠지는 형태를 보였다. 이 경우 박민규가 높게 전진해 수원삼성의 윙백을 묶고, 박주호가 밀선에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했다. 수원FC는 빌드업 상황서 좌우 진영을 활발히 활용해 상대 수비를 흔들고 측면에서의 빠른 전개를 통해 수원삼성을 공략했다. 이날 왼쪽 윙백인 박민규와 왼쪽 미드필더 박주호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수원FC 측면 공격의 핵심이 됐다. 이 둘은 전체 451회의 패스 중 30번을 주고받았다.



수원FC는 왼쪽 진영에서의 위치 변화를 통해 수원삼성의 측면을 공략했다.

수원FC의 선제골 장면은 이러한 전술적 맥락에서 완벽히 이뤄진 것이었다. 수원FC가 오른쪽 진영으로 공격을 전개할 때, 왼쪽 진영에서 위치 변화가 발생했다. 박민규가 전진하는 동시에 중원의 정재용이 측면으로 틀어 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수원FC가 왼쪽 진영으로 공격을 전환할 때, 정재용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1선으로 침투하는 박민규에게 정확한 스루패스를 찢러 넣어 선제골의 기반을 마련했다.

김현 역시 이날 경기 분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다. 수원FC는 간결한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마땅한 옵션이 없을 경우, 전방의 김현을 향해 롱 볼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현은 수원삼성이 백3를 들고 나오면서 양상민, 민상기, 장호익의 견제를 모두 받아내야 했으나, 전방에서의 높이 싸움에서 계속 승리하며 수원FC 공격의 핵심이 됐다.

이는 김현이 득점한 팀의 1, 3번째 골 장면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첫 번째 득점에서는 양상민과 민상기의 사이 공간에서 크로스를 받아 정확한 헤더 득점을 뽑아냈다. 박민규의 크로스 자체가 높게 전개된 탓에, 김현의 신체 조건이 그 어느 때보다 빛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이후 세 번째 득점 상황에서는 김현의 감아차기 이전에 포스트 플레이가 있었다. 장호익의 뒷공간으로 침투해 김건웅의 롱 패스를 가슴으로 떨구어 수원삼성의 수비라인을 정면으로 상대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경기 전 이병근 감독은 “라스나 이승우에게 당한 기억이 있어 두 선수를 막아내기 위한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언급하며 라스와 이승우를 수비하는데 집중할 것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날 경기의 주인공은 라스도 이승우도 아닌 김현이었다.



수원FC의 세 번째 골 장면. 김현의 포스트 플레이가 있었기에 감아차기 득점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수원FC가 수원삼성의 허점을 잘 공략한 경기였다. 수비 시에는 수원삼성의 2MF를 봉쇄하는데 집중했으며, 공격 시에는 측면을 빠르게 활용해 수비에 균열을 냈다. 여기에 최전방 김현의 활약까지 더해지면서 무려 4골이라는 득점을 기록하는데 성공했다.

수원삼성이 이날 윙백의 측면 활용을 통해 좋은 공격 상황을 여럿 만들었다. 하지만, 직선적인 공격 전개에 있어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결정적으로 전방 타겟맨 역할을 수행하는 양 팀 공격수들의 활약도 차이가 어느 때보다 두드러진 경기였다.



# K리그1에 다시 찾아온 '백4' 수비라인

불과 지난 시즌까지 백3 전술이 성행했던 K리그에 다시 백4 전술의 트렌드가 찾아오는 듯하다. 아니, 정확하게는 백3와 백4를 혼용하는 방식이다. 제주UTD, 수원FC, 수원삼성, 성남FC, 김천상무가 그렇다. 매 경기 유연하게 혼용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경기 중 처한 상황과 주어진 전력 안에서 다양한 전술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흥미롭다.

기술위원 칼럼 \_ 백4 트렌드  
박 태 하

지난 시즌 K리그1은 그야말로 '백3'의 시대였다. 2021시즌 K리그1 전체 12팀 중 무려 8팀이 백3 수비라인을 활용하며 시즌을 마감했다. 전북현대, 울산현대, 포항스틸러스, 광주FC를 제외한 모든 팀이 백3 전술을 활용했다. 최후방에 5명의 숫자를 확보하여 수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백3 전술은 많은 팀들에게 선택받았고,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 장호익, 박대원, 최지묵, 신세계, 윤석영 등 백4의 왕백으로 활약하던 선수들이 백3 시스템 아래서 센터백으로 변모하기도 했다. 작년 K리그에 붙어온 백3 트렌드는 리그 전체 득점 수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시즌 K리그 경기당 평균 득점은 단 2.46골이었다. 경기당 2.39골이 터진 2015년 이래로 가장 적은 평균 득점이 기록된 것이다. 2016~2020시즌 동안 평균 득점이 2.5골 아래로 기록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매우 저조한 득점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시즌의 경기당 평균 득점은 2.55골이다.

백4 : 중앙 수비 2명과 양 측면 수비 2명으로 구성하는 수비라인

## 왜 백4를 다시 활용하나?

이번 시즌 K리그의 전술적 트렌드가 점진적인 빌드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K리그는 2016시즌 이래로 가장 높은 경기당 평균 패스인 396개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빌드업을 중시하는 J리그의 이번 시즌 평균 횡수(406개)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치이다. 이번 시즌 K리그는 빌드업과 짧은 패스를 중요시하는 전술적 트렌드로 변모하고 있다. '빠르고 역습을 중시하는 리그'라는 K리그의 일반적인 인상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중원 싸움이 더욱 중요해진 시즌이 됐다. 구조적으로 백4는 백3에 비해 미드필더 숫자를 더욱 많이 배치할 수 있는 대형이다. 중앙 수비 한 명을 덜 두는 대신, 미드필더나 톱 라인 쪽에 선수를 더 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4명으로 수비라인을 구성해야 하는 탓에 백3에 비해 넓이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상대가 경기장을 폭넓게 활용할 경우, 측면을 커버하려 가는 과정에서 수비라인에 공간과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중원라인의 안정성 역시 더욱 중요해졌다. 올 시즌 K리그는 중원 수비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경기 결과를 좌우하고 있다. 강력한 점유 게임을 펼치는 울산현대와 FC서울 정도를 제외한다면 중원라인의 수비력이 경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듯한 모습이다. 하위권에 위치한 수원삼성과 성남FC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시즌 수원삼성은 여름 이적시장에서 이종성(임대 복귀)과 정호진을 영입하기 전까지 수비력을 갖춘 중원 자원의 부재가 두드러졌다. 최성근이 장기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으며, 한석준은 예년에 비해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성남FC 역시 중원에서 상대 공격을 안정적으로 수비해낼 만한 선수가 부족하다. 밀로스, 권순형, 구분철, 김민혁 모두 '수비력'에 강점을 가진 미드필더들은 아니다.

이러한 흐름은 지난 시즌과 반대되는 양상이기도 하다. 지난 시즌에는 필드를 폭넓게 활용하는 팀들이 많아 백3 수비라인이 트렌드로 작용했다. 앞서 얘기했듯 전체 12팀 중 8팀이 백3 대형을 활용하며 시즌을 마감했으며, 백4를 고수하던 전북현대와 포항스틸러스 역시 잠깐이나마 백3 전술을 가동한 전례가 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이번 시즌은 그 반대라 할 수 있다. 점진적인 빌드업을 추구하는 팀들이 많아진 탓에 중원 싸움이 중요해져 백4가 트렌드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제주UTD, 수원삼성, 성남FC는 기존의 백3로 이번 시즌을 시작했으나, 시즌 중 백4로 완전히 전환하거나(수원삼성) 혼용하기 시작한 팀들이다.(제주UTD, 성남FC)



## ‘백3의 대명사’ 제주UTD가 백4를 활용하게 된 배경

남기일 감독의 제주는 K리그 내에서 ‘백3의 대명사’와 같이 불리는 팀이다. 수비 시에는 최후방에 백5 대형을 형성하며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격시에는 전방에 많은 숫자를 배치하여 백3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제주의 백3는 5-2-3 대형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을 우선시한다. 또한, 공격 시에는 좌우 센터백이 전방에 직접 가담해 뒷선에 더 많은 숫자를 확보하게끔 한다. 좌우 센터백이 보다 높은 지점에서 공격을 전개하는 탓에, 양 윙백 또한 높게 위치하여 상대 박스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는 윙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것이 제주가 백3 전술에서 공격성을 확보한 방식이다.

남기일 감독의 이러한 백3 시스템은 리그에서 유효했으며, 좋은 성적을 냈다. 제주에 부임한 2020시즌부터 바로 K리그2 우승컵을 거머쥐었으며, ‘승격팀’ 자격으로 참가한 2021시즌 K리그1에서는 4위를 차지했다. 백3를 가동하고 있던 지난 5월 중순까지도 제주는 리그 2위 자리에 위치한 팀이었다.

백3와 함께 좋은 모습을 보이던 제주가 최근 백4를 혼용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시작은 22R 포항전이었다. 당시 백3의 핵심축인 정우재와 정운이 부상으로 이탈한 탓에, 이날 제주의 백4는 완벽히 준비된 전술 변화보다는 차선책에 가까운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후 백3를 가동한 성남전(26R)에서 패하고, 백4를 꺼내든 전북전(25R)과 서울전(27R)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자 백4 수비라인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제주의 백4는 수비 시 중원에 힘을 두는 형태다. 기조는 4-5-1 대형이다. 수비 시 좌우 미드필더와 중앙 공격수가 상대 3선 미드필더를 집중적으로 수비하며 빌드업을 봉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경우 상대의 중앙 공격 루트는 제한당하고, 빌드업의 핵심을 담당해야 할 3선 미드필더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된다. 상대 중원라인을 집중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측면 빌드업을 유도하거나 롱 볼을 시도하도록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제주 3MF의 좌우 선수들이 상대 3선을 압박하기 위해 나설 경우, 양 윙어는 중앙으로 좁혀 안 쪽 공간을 우선적으로 수비하도록 한다. 전진한 MF의 배후 공간을 내주지 않기 위한 대비책이다. 윙어는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한 상대 선수를 잡아내며 백4 라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후 상대가 측면으로 볼을 전개한다면, 윙어와 윙백 중 볼에서 더 가까운 선수가 빠르게 접근해 측면을 수비한다.



제주의 4-5-1 수비 형태. 좌우MF가 전복의 3선 2MF를 1v1로 수비함으로써 빌드업을 제한한다. 양 윙어는 중앙으로 좁혀 안쪽 공간을 우선적으로 수비한다.

한편 제주가 백4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본격적으로 기회를 얻기 시작한 선수가 있다. 바로 윤빛가람이다. 윤빛가람은 제주의 3-4-3 시스템 내에서는 플레이 스타일과 전술적 역할 측면에서 모호한 부분이 존재했다. 3-4-3의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하자니 안정성이 떨어지고, 윙어로 활용하자니 스피드와 활동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주가 윤빛가람의 기용을 위해서 기존에 잘 활용해왔던 3-4-3 전술을 바꾸는 것도 옳은 선택은 아니었을 것이다. 제주가 백4로 전환하면서 미드필더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윤빛가람이 신입받게 된 것이다.

윤빛가람은 그간 제주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공격의 유희유 역할을 제공했다. 공격시 4-2-3-1의 3선 자리에 위치하며 최영준과 함께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수행했다. 지난 시즌 울산 소속 때보다, 더욱 낮은 위치에서 공격을 전개하며 팀의 전반적인 빌드업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3선 자원에 윤빛가람이 들어온 제주는 이제 더욱 다양한 빌드업 옵션을 갖게되었다. 중원에서의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통해 상대 미드필더를 벗겨내기도 하며, 측면으로 높게 전진한 양 윙백을 지원하기도 한다.



제주의 4-2-3-1 공격 형태. 윤빛가람은 최영준과 함께 3선에 위치하며 빌드업의 시발점이 된다.

## ‘감독 교체’와 함께 백4로 변모한 수원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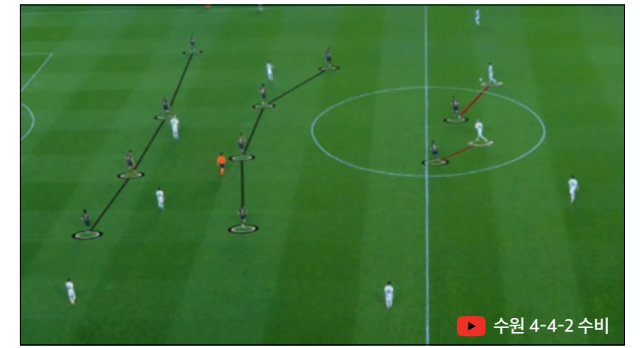
한편 수원삼성은 박건하 감독 지휘하에 백3 체제로 시즌을 시작했으나, 시즌 중 이병근 감독으로 사령탑이 교체되면서, 백4 체제로 전환한 팀이다.

이번 시즌 박건하 감독 체제에서의 최대 문제는 미드필더 김민우와 고승범의 부재였다고 할 수 있다. 박건하 감독 체제의 수원은 수비 시 5-3-2 대형을 형성했는데, 미드필더 숫자가 적은 만큼 중원에서의 활동량과 안정성이 중요한 대형이다. 지난 시즌에는 김민우와 고승범의 넓은 활동량을 통해 안정적인 5-3-2 수비 대형을 구축했으나, 이번 시즌 초 수원은 그 공백을 메우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였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중원에 안정감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최성근마저 부상으로 이탈하니 수원 중원의 수비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이병근 감독은 백4로 전환하여 근본적으로 미드필더 숫자를 많이 둘 수 있게끔 했다. 김민우와 고승범의 공백을 중원 숫자를 많이 배치할 수 있는 백4 전환을 통해 해결하려 한 것이다. 여기에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수비 자원인 이한도와 구대영을 보내고, 중원에 수비력을 더할 수 있는 이종성과 정호진을 데려와 포지션별 선수 숫자를 조절했다.

이병근 감독 체제의 수원은 우선 수비라인에서의 안정성을 위해 기존 백3 체제에서 센터백으로 활약했던 장호익을 오른쪽 윙백으로 기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윙백이었던 김태환이 측면 미드필더 자리를 겸하기 시작했으며, 왼쪽에는 마나부나 류승우를 배치해 부족한 공격력을 더했다. 이병근 감독 부임 초기에는 이러한 선수 구성을 통해 공격 시 비대칭 형태를 보이기도 했다. 장호익이 후방에 위치해 백3 대형을 형성하고, 왼쪽 윙백인 이기제가 전방으로 올라가 1선 숫자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수원은 상대에 따라 수비 형태를 다르게 가져가는 편이다. 우선 기조는 4-4-2다. 성남과 같이 빌드업 시 미드필더의 지분이 높은 팀을 상대로는 2톱이 내려서 상대 3선 지역을 집중적으로 수비하고, 상대 센터백의 빌드업을 유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만약 대구와 같이 공격 시 폭넓은 그라운드 활용을 가져가는 팀을 상대할 때면, 4-4-2의 측면 미드필더가 상대 윙백을 마크하거나 아예 백3 수비 대형을 꺼내드는 방식을 보이기도 했다. 수비 시 무조건 백4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 따라 백3 대형도 꺼내든 것이다. 이병근 감독 체제의 수원은 대구전(26R)과 전북전(FA컵)에서 백3 시스템을 꺼내든 바 있다.



수원의 4-4-2 수비 형태. 성남과 같이 미드필더의 지분이 높은 팀을 상대로는 2톱이 2MF를 전문적으로 수비하는 모습을 보인다.

축구계는 정말 빠르게 돌아간다. 매주 경기 결과에 따라 팀들의 순위표도, 팬들의 기분도 바뀌지만, 경기장 안에서 벌어지는 전술적 변화도 빠르게 돌아간다. 감독들은 자신과 상대 전술에 대한 공략법과 대처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현재 전술의 변화와 유지강화 사이에서 깊이 고심한다. 전술 변화는 팀 전체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지난 1년 사이에 FC서울은 K리그에서 가장 볼을 잘 소유하는 체계적인 팀이자, 인버티드 윙백 전술을 활용하는 수준 높은 팀으로 변모했으며, 수원FC는 리그에서 가장 낮은 볼 점유율을 가져가면서도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는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팀이 되었다.

현재 K리그에 불어온 ‘백4 트렌드’도 따지고 보자면 불과 3-4달 만에 일어난 일이라 할 수 있다. 시즌 개막과 함께 불어온 새바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해 우리 K리그도 전술적 트렌드에 매우 민감해졌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주변의 변화를 빠르게 인지하고, 대응하지 못하는 감독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 이제 ‘공부하는 지도자’라는 명칭은 특정 지도자에 대한 수식어가 아닌, 모든 지도자가 당연히 해당 되어야 하는 필수항목이 되었다. 당장 작년의 전북현대만 보더라도 리그 중반 갑작스러운 전술 변화를 통해 우승을 차지하지 않았는가. 빨라지는 K리그의 전술적 트렌드 변화는 분명 K리그 팬들에게도 큰 즐거움이 될 것이다.



기술위원 칼럼 - 백4 트렌드 박태하

2010.12 ~ 2011.12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수석 코치
2011.12 ~ 2012-12	FC서울 수석 코치
2014.12 ~ 2018.10	엔벤FC (중국) 감독
2019.01 ~ 2020.12	중국 U-19 여자 축구 대표팀 감독
2021.03 ~	한국 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장



# 충남아산이나, 경남이나.

# K리그2 플레이오프 출전권은 누구의 손에?

8월이 끝난 지금, 어느덧 리그 일정의 80% 이상 진행된 K리그2에서는 순위권 윤곽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1위 자리에는 광주가 확고한 선두권을 수성하고 있으며, 안양-대전-부천이 2~4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그 밑에는 충남아산과 경남이 5-6위권을, 김포, 서울E, 안산이 7~9위권 자리를 놓고 순위 싸움을 펼치고 있다.



## 22시즌 '최소 기대 실점', 충남아산

박동혁 감독 체제의 충남아산은 본래 '수비 조직력'을 최대 강점으로 앞세운 팀이다. 지난 시즌에도 팀의 순위는 8위에 그쳤으나 실점 수는 리그에서 5번째로 낮았다. '박동혁 5년차'를 맞이한 이번 시즌에는 리그 내에서 기대 실점 값이 가장 낮은 팀으로 군림했다. 실 실점 수 역시 2번째로 낮다. 충남아산은 전력 대비 완성에 가까운 실점 기록을 보이며 K리그2 내에서 가장 수비 조직력이 뛰어난 팀으로 등극했다.

충남아산 수비 조직의 핵심은 팀 전체가 확고한 수비 의식을 가졌다는 데에 있다. 전방에서부터 타이트한 간격을 통해 상대 옵션을 제한하며 수적 열세에 처하지 않도록 한다. 최후방에는 백5 라인을 통해 높은 밀도를 형성하며, 전방에는 미드필더와 공격수가 중앙 지역을 우선으로 수비하여 상대를 측면으로 유도한다. 3-4-3 대형을 기조로 하되, 경기 중 상대의 공격 지점에 따라 5-2-3과 5-4-1 대형을 유기적으로 혼용하면서 압박 강도를 설정한 것이다.

충남아산은 결코 낮은 지점으로 '내려앉는' 팀이 아니다. 뒷선에서부터 수비를 시작하나 이 지점에서 강한 압박을 가하지 않을 뿐이다. 충남아산은 전방에서 타이트한 5-2-3 대형을 형성해 상대가 롱 볼을 전개하게끔 유도한다. 충남아산이 낮은 볼 점유율을 보이는 것에 비해 '압박 강도(PPDA)' 수치에서 상위권에 위치한 이유다. '압박 강도'는 우리 진영에서 상대 패스를 적게 허용할수록 좋게 산출되는 수치이다. 지난 시즌 충남아산의 볼 점유율은 8위



아산의 경남전 5-2-3 수비 형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5-6위권의 충남아산과 경남이다. 플레이오프 진행상 유불리에 차이가 있는 2~4위와는 달리, 이 두 팀 중 하나는 한 달 뒤에 펼쳐지는 플레이오프에 아예 참가하지 못한다. 앞의 2~4위권과 뒤의 7~9위권에 비해 훨씬 치열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6위 경남과 5위 충남아산과의 승점 차이는 단 2점 차. 6위 경남이 한 경기 덜 치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간극이 더욱 좁다. 이 두 팀은 어떤 전술을 통해 이번 시즌을 치러왔을까.





(45.8%)였으나, 압박 강도는 리그 내에서 5번째로 높았다.

일례로 이번 시즌 경남과의 경기를 살펴보자. 후술하겠지만, 경남은 공격 시 4-2-2-2 대형을 형성하는 팀이다. 패스를 통해 경기를 풀어나가며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활용해 상대 MF라인을 공략한다. 경남은 이날 역시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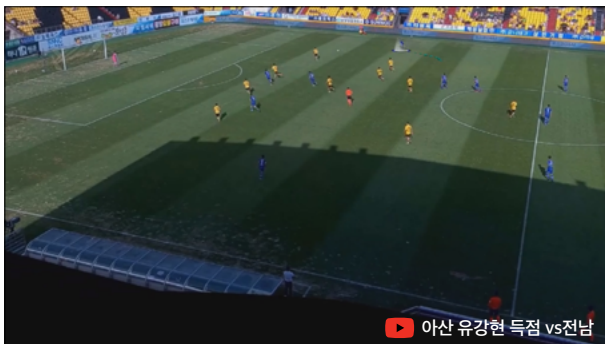
충남아산은 5-2-3 수비 형태를 통해 경남의 빌드업에 대응했다. 미드필드 1/3 지점에서부터 수비를 시작하되 윗선의 2MF와 3톱이 좁은 간격을 형성하여 경남의 3선을 봉쇄했다. 한편 후방에서는 5명의 수비 라인이 경남의 1선 라인을 5v4로 형성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었다. 최후방 3CB이 경남의 2톱을 수비하고, 양 윙백이 상대 2명의 2선 선수들을 1v1로 잡았다. 윙백이 경남의 2선을 마크해야 했기 때문에 수비 시작 시에는 측면이 아닌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이날 충남아산은 이러한 5-2-3와 공간을 지키는데 용이한 5-4-1을 유기적으로 혼용하며 경남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비해냈다.

한편 충남아산이 공격을 전개할 때면 전방으로 빠르게 볼을 투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격 시에는 3-4-3 대형을 기초로 한 3-2-5 대형을 형성한다. 중원을 거치지 않고 1선으로 한 번에 볼을 투입하려 하나, 상황에 따라 빌드업 형태에 변형을 줄 수도 있다. 대개 미드필더 한 명이 측면으로 빠지고 왼쪽 센터백인 이은범이 윗선으로 전진해 측면 수적 우위를 형성하는 형태다. 상황에 따라라면 공격 라인 중 한 명이 상대 수비-미드필드 라인 사이로 내려와 볼을 받아내려 한다.

충남아산은 이러한 공격 형태를 통해 1선으로 빠르게 볼을 연결하고 3톱이 박스 안에서 많은 볼을 받아들 수 있게끔 한다. 이때 직선적인 공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세컨볼 탈취다. 충남아산이 1선으로 볼을 연결할 때면, 3톱과 2MF가 빠르게 볼 주위 지역으로 밀집하여 세컨볼을 따낼 준비를 한다. 이번 시즌 충남아산이 '인터셉트'와 '획득' 수치에서 리그 1위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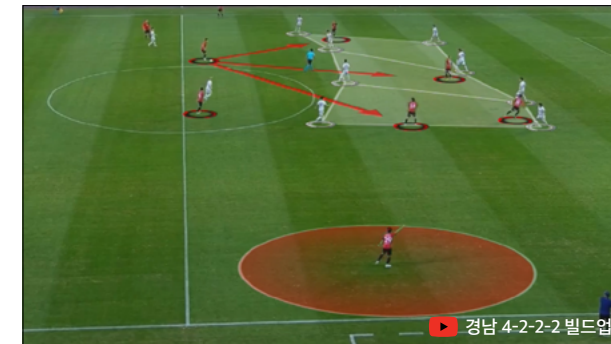
최대한 직선적인 공격을 통해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충남아산의 공격 컨셉이다. 이번 시즌 충남아산은 리그 내에서 3번째로 점유율이 낮은 팀이나 크로스 횟수는 1위에 빛난다. 그만큼 전방으로 빠르게 볼을 연결해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충남아산의 직선적인 공격에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유강현이다. 유강현은 박스 안에서의 영리한 움직임을 통해 득점을 뽑아내는 선수다. 박스 안으로만 한정하자면 이번 시즌 K리그2 내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라 할 수 있다. 주민규와 같이 피지컬을 통해 밀어 붙이는 유형은 아니지만, 빠른 예측력을 통해 볼의 연결 지점을 선점하고 득점을 만들어내는 스타일이다. 여기에 뛰어난 골 결정력과 좋은 유연성이 그를 더욱 빛나게 해준다. 이번 시즌 유강현은 리그 17골을 넣으며 경남의 티아고와 공동 득점왕에 올라갔다.



충남아산의 전남전 득점 장면. 첫 번째 롱 볼에 실패하자 세컨볼 경합에서 이거 볼을 제탈취하고, 윙백에게 볼을 연결해 득점에 성공했다.

## 설기현의 '4-2-2-2'가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하나?



경남의 안산전 빌드업 형태.

설기현 감독의 4-2-2-2가 드디어 공격성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번 시즌 경남 54골을 넣으며 리그 최다 득점 팀에 이름을 올렸다. 기대 득점 수치 역시 가장 높다. 설기현 감독은 부임 직후 3-2-5 공격 대형을 통해 점수 축구를 구사했으나, 지난 시즌 초 4-2-2-2로 변화를 줘 이번 시즌의 구색을 갖추기 시작했다. 지난 시즌 경남의 공격력은 올해 만큼 파괴적이지 않았다. 36경기에서 40골을 넣었으며, 이는 21시즌 리그 내에서 5번째로 높은 수치다.

물론 수비력이 다소 약해 많은 골을 허용한다는 것이 흠이지만, 기대 실점 자체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다. 이번 시즌 경남은 총합 5골 이상이 나온 경기만 8번을 치러왔다. 이중 가장 인상적인 경기는 19R 김포전(6-1 승), 23R 광주전(1-4 승)이라 할 수 있겠다.

경남은 중원에서부터 빌드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팀이다. 이번 시즌 K리그2에서 2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4-2-2-2가 공격 대형의 기초가 된다. 중앙 4명의 선수들(2CB와 2MF)은 적극적으로 볼을 받아내려는 자세를 취하며, 전방에서는 2선 선수 2명이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한다. 2톱은 1선에 붙어 상대 수비 라인을 누르고 2선 선수들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6명의 선수들이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 치중함에 따라, 윙백이 측면에서 공간을 얻으며 전진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진다.

경남은 이러한 4-2-2-2 형태를 통해 빌드업 상황에서 많은 옵션을 누린다. 경남의 안산전 빌드업 장면을 보자. 2선 선수들이 양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해 있고, 2톱 중 한 명이 상대 수비 라인을 누르다 순간적으로 내려온다. 그럼으로써 볼을 소유한 중앙MF에게 3개의 패스 선택지가 생기는 것이다. 반대 측면에 넓은 공간을 얻은 윙백 역시 눈에 띈다. 중앙MF가 전방으로 볼을 연결하기에 공간이 없다면, 반대 윙백에게 롱 볼을 건네는 것 역시 좋은 옵션이다.

이는 에르난데스가 이탈했음에도 경남의 득점 페이스가 꺾이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경남의 이러한 4-2-2-2 형태는 전술 구조상 어느 한 선수에게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선수들 간의 명확한 위치를 통해 서로에게 패스 옵션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시즌 에르난데스는 K리그2에서 8골 4도움을 기록했으나, 그의 공백이 경남의 빌드업 체계를 무너뜨릴 만큼 크진 않았다.

한편 경남이 공격 1/3 지점으로 볼을 전진시킨 시점에서는 경기장을 폭넓게 활용하기 시작한다. 중앙 4명의 선수들에게 공간을 열어주기 위함이다. 상대 수비 입장에서 진영을 중앙으로 밀집하여 경남의 공격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조금이라도 간격이 벌어지다간 1선에 밀집한 4명의 선수에게 패스 옵션이 생겨버리기 때문이다. 경남은 이때 벌어진 측면 공간을 윙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상대 수비를 혼돈다.

결국 경남 공격의 관건은 상대 MF라인 사이에서 얼마나 공간을 얻고, 적극적으로 볼을 받아내는가라 할 수 있다.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 쪽에 많은 선수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으로 볼이 투입되지 못한다면 상대가 경남의 측면 전개에만 손쉽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상대 윙백이 경남의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끌려 나갈 일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시즌 충남아산과 경남의 플레이오프 경쟁이 더욱 매력적인 이유는 두 팀이 완전히 반대 성향의 전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아산은 백3를 기반으로 한 견고한 수비 축구를 구사하며, 경남은 백4 시스템 아래에서 최다 득점 팀으로 등극했다. '방패'와 '창'으로 비유할 수 있는 두 팀이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최후에 K리그2 플레이오프 티켓을 거머쥘 주인은 누가 될까. 충남아산과 경남의 순위 경쟁은 K리그2의 남은 시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경남의 공격 1/3 지점 공격 형태. 경기장을 폭넓게 활용하며 1-2선 선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준다.





**K LEAGUE**

2022 K LEAGUE  
TECHNICAL REPORT

TSG MONTHLY  
MAGAZINE

